

고등교육 개혁

[학벌없는 사회만들기] 대표 이공훈

[학벌카르텔] 밴드 카페지기 이공훈

■ 고등교육의 사립일원화

필자의 교육개혁안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국립대학체제 해소 즉 '고등교육의 사립일원화'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에 진학하는데 있어 '시험선발제도 폐기'이다.

그 이유는 국립대학을 설립 운영할 필요성이 이제는 사라지고 사립대학도 충분히 인재양성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과 대학 진학하는데 시험선발의 폐해가 너무 크고 외국의 경우처럼 시험에 의하지 않는 방식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더 세부적인 이유도 많지만 간단히 줄이면 그렇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도 너무 많지 않나 하는 게 요즘의 생각이다. 즉 국립대학체제 해소 한 가지만으로도 이를 잘 실현하면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유는 만일 대학들을 일원화한다면 그것도 사립으로 일원화하면 모든 대학들이 법적으로 국가로부터 동등한 법적지위를 갖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시험선발을 선호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가로부터 모든 대학들이 동등한 대우와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시험을 보아 그 성적을 공개하려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이는 그동안 시험을 보아 성적을 공개하려 한 이유가 국가로부터 특혜를 받는 국립대학들이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환으로 공개경쟁과 그 결과의 공개가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경매과정을 보면 그 진행과정을 철저하게 공개하는데 그 이유가 낙찰과 유찰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혜택이 크면 그 결과를 공개를 해야 당사자는 물론이고 제3자가 승복을 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사립대학에 대한 배제 사이의 차이는 크다.

이를 정당화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공개경쟁시험선발제도를 활용하는 게 아닐까.

국가가 국립대학들을 지원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다른 이유 하나는 국립대학들을 설립하였으니 지원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인데 이는 한번 설립하면 영원히 지원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에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므로 근거가 있는 답이라고 할 수가 없다.

다른 하나는 국가는 고등교육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도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에 대한 차등 지원을 설명 못하므로 정당한 답이 되지 못한다.

<표 1> 고등교육 현황

구분	학교 수				입학자수	학생 수
	국립	공립	사립	소계		
일반대학	34	1	154	189	348,393	2,084,807
전문대학	2	7	129	138	208,808	697,214
계	36	8	383	427	557,201	2,782,021

※ 자료: 교육통계서비스(2016)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국립대학이건 사립대학이건 힘이 닿는 한 공평하고 공정하게 지원 하는 게 옳아 보인다. 그래서 필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립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사립대학에 대한 방기를 문제를 삼곤 하지만 흔쾌한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교육의 큰 병폐 중 하나가 입시위주교육이고 사교육의 창궐이다.

입시위주교육은 아이들의 심신을 황폐하게하고 창의성을 잠식하며 미래에 대한 낙관을 안겨주지 않는다. 그리고 학부모들도 사교육비 조달에 힘들어하고 부정 부패의 원인도 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입시위주교육과 사교육창궐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필자가 생각한 것이 미국식 무시험선발제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특정 대학에 대한 국가의 편애를 없애는게 우선되어야 하고 만일 그렇게 된다면 시험선발의 유용성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왜냐 하면 국가의 편애가 사라진 가운데 대학들 간에 의미 있는 선발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그때에는 시험선발이 아니라 인터뷰와 추천과 내신과 같은 방식의 조합에 의한 유의미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선발은 대학과 대학교육이수희망자 사이의 사적자치의 원리에 의한 계약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이라는 조건이 첨부됨은 물론이다.

필자의 논리에 큰 하자가 없다면 앞으로 가능한대로 대학일원화 그중에서도 사립일원화를 교육개혁의 정리된 안으로 우리 사회에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고등교육에 대한 사립일원화는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영·유·초·중등교육에 전념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도 갖게 할 것이라고 본다.

■ 최고의 스승은 자연

장 자크 루소는 그의 저서 '에밀'에서 우리들에게 최고의 스승은 '자연'이라고 갈파한 바 있다.

주인공이기도 한 에밀에게 그의 선생이 심혈을 기울여 가르치려 한 것은 사물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자연을 만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며 사랑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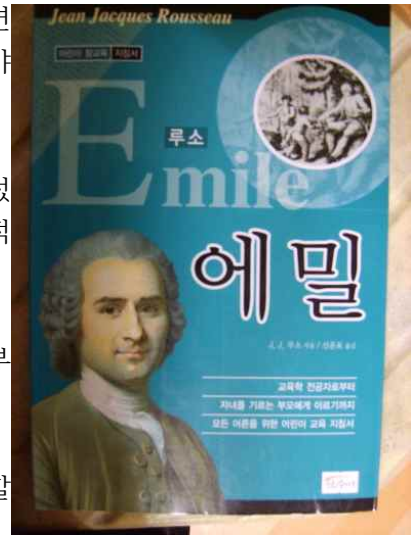
루소 자신을 의미하기도 했던 선생은 선생의 바람직한 모습을, 학생들을 자연 앞으로 인도해 주는 안내자의 역할에 한정하려 했지 사물의 이치를 훤히 꿰뚫는 능력자로 비추어져서는 안 된다고 여겼다.

자연의 심오한 뜻을 스스로 깨달으면서 인간으로 성숙해간다는 그의 자연주의철학은 근대의 교육철학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고, 교육학을 공부해야 하는 자들에게 ‘에밀’은 필독서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현장을 보면 교사들이 정말 그 책을 읽고 교단에 섰는지 의심이 갈 정도이다. 오히려 자연과 점점 멀어지도록 반 자연친화적 교육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 모르겠다.

예를 들 것도 없지만 사실이 그렇다면 학생들이 에밀을 읽은 교사들로부터 자연을 뺏기고 있다는 역설이 성립하는 셈이다.

교사들이야 입시위주교육 풍토에서 학생들만이 아니고 교사들도 경쟁할 수밖에 없는 이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냐고 항변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로부터 배우고 자란 우리의 2세들이 어떤 사회를 일구어 나갈지 미루어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특히 요즘처럼 대통령탄핵 사태를 앞두고 정치적 소신을 앞세워 수십년 지기끼리 척을 지는 모습을 보면서 인성교육의 박약함을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필자는 루소가 참 그림다.

어떻게 하면 교사들이 학생들을 자연에 가까이 가게하며 자신을 그들을 위한 안내자 혹은 동반자적 자세를 갖게 할 수 있을까. 그리하여 성숙한 시민으로 키워낼 수 있을까.